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22

若眞心者 無知而知 平懷圓照故 眞心者 無知而知 平懷圓照故

영가스님이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고자 하면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이 교묘한 속입수를 이루게 되니, 공부하는 사람이 수행할 줄을 알지못하면 도적을 자식으로 삼게 된다' 했던 것이다.

만약 진심이라면 안다는 생각이 없이 알아서 생각이 공평하여 원만하게 비추므로 초목과는 다르며, 또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므로 망심과도 다르다.

故祖師云 不逐有緣 勿住空認 故祖師云 不逐有緣 勿住空認 고조사은 불축유연 물주공인

故緣論云 大聖心者 微妙無相 고조론은 부성심자 미묘무상 고조론은 부성심자 미묘무상

경계를 대해서도 마음이 비고 밝아 안다는 생각없이 아는 것이 진실

우망심 재유착유 재무착무 상재이변 乃不平常心也 내불평상심야

그러므로 조사께서 '인연을 따라 좇아가지도 말고 공(空)이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한결같이 마음을 공평하게 가지면 망심은 절로 사라진다' 하였고 <조론>에는 '성인은 유(有)에 머물러도 유에 집착하지 않고, 무(無)에 있으면서도 무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유무를 취하지 않지만 유무를 버리지도 않는다. 이런 때문에 세속에 어울려 다섯 가지 나쁜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더라도 고요히 잤다가 홀연히 오며, 담당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서도 하지않는 일이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조론>에 '대개 성인의 마음은 미묘하여 상(相)이 없으므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걸 쓸수록 더욱 부지런하니 없다고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만 아는 것이 없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이 아는 것이다' 하였다.

행법스님 <월현사포교원 주지>

대전 보문교 교장이셨던 전상일스님이 나의 은사스님이시는데, 나는 출가 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었나 봐요. 왜정 때는 일터에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길거리에 절인들이 식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터에서 일터로 옮겨다니며 밥을 먹었어요. 그런 절인들을 훑 보게되면 불려서 먹던 밥상일망정 같이 먹었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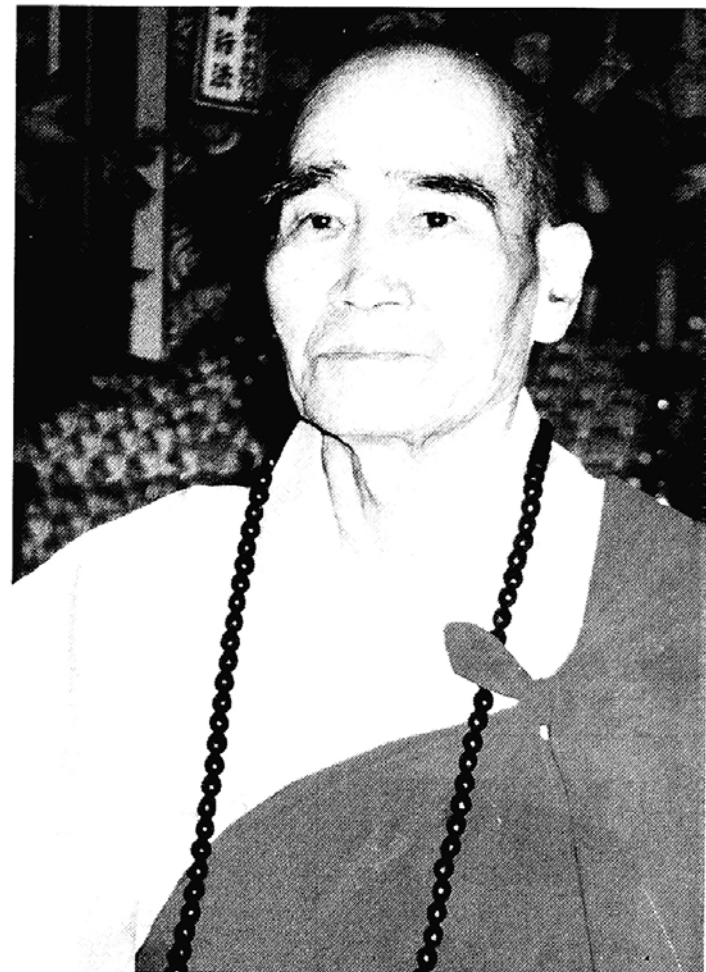
불교는 곧 자비의 가르침이잖아요. 불교의 자비는 자아완성의 실현에서 오는 수행의 단계로 절대 사랑이며 평등의 사랑입니다. 만유(萬有)가 동체(同體)임을 깨닫고 자기됨을 보살피듯 하는 사랑입니다.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해서인지 불자들까지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그러나 자비의 마음은 자기 수행을 위한 진실적 마음의 포출인 것입니다. 남에게 한량없는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마음, 어여버 여기는 마음,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자(慈)요, 일체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참사랑의 마음, 누군가 슬픈 일을 당하면 가슴아파하고 그것을 없애주려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이 비(悲)입니다.

출가하기 전에는 외원 노릇을 했어요. 무슨 자격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침을 잘 놓았어요. 곧 죽을 듯한 환자들도 침 몇 대 맞고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표정이 맑게 개어요. 용하다는 소문이 퍼져 여기저기 자주 불려다녔지요. 밤낮 가리지 않고 먼 길 마다않고 다녔지요. 그러다 갑자기 병을 얻었는데, 백약이 무효였어요. 병 고치려 절에 들어갔지요. 매일 냉수 목욕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밤 꿈에 부처님을 보았지요. 부처님 두 분이 먹장상에 가사를 두르고 서쪽에서 오시는 겁니다. 미간에서는 백호 광명이 햇빛보다 눈부신 빛으로 나를 비

“참다운 공양이란



- 1923년 충남 연기 출생
1954년 상일스님을 은사로 득도
1955년 충남 연기 월현사 청진
1965년 연기군 연수회(練修會) 회장
1985년 조치원에 월현사 포교원 개설

“복 주세요 축원 잘해 주세요” 불교신앙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 지켜야 참불자

합롭게 하는 것이지요. 나는 아침에 수제비 한 그릇을 먹고 다 른 끼니는 거름니다. 이렇게 하기를 10여 년 됐어요. 일종식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요새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먹는 일에 집착합니다. 먹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지나치게 맛있는 것, 좋은 음식에 탐착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먹는 맛을 알면 도를 닦지 못합니다. 보는 맛, 듣는 맛을 알면 도(道)의 눈을 잃어 버립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런 소리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배고픔을 몰라야 합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내 것, 네 것 하며 싸움하고, 쫓겨다니고 모두들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벗고 앉았으면 어때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이르기를, “너에게는 내일이 없느니라” 했어요. 오늘 죽을 수도,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치를 알고 깨닫는 것이 불교입니다. “복을 주세요, 축원 잘해주세요” 이런 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일생동안 부처님 앞에 돈 한푼, 쌀 한톨 갖다놓지 않더라도 부처님 가르침 하나라도 지키려 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에요. 불교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고 또 그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고 즐겁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5계예요.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술먹고 취하지 말아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그런데 승속을 막론하고 온전히 지키는 사

Advertisement for Mahamudra songs. Title: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With Seok-yong-san, have you heard the songs of Mahamudra?). Includes a list of 5 songs and a price of 3,800 won per volume.